

지역메아리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강구하자'를 통해 우리시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철조망 및 전기울타리 설치 공모로 국비확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단서조항 및 피해방지단 영농철 총기 상시소지 검토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상향조정 등을 주장했다.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민선7기 정읍시정 중간평가와 2020년 예산편성에 대하여'를 통해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가 되는 중요한 시기로 2020년 중점사업 방향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제동을 건 사업에 대한 성찰 ▶시정의 역할과 리더십의 재고로 행정전용성 극대화 ▶정읍방문의 해에 대비한 예산편성(공익 우선의 원칙, 혁명가의 거리 조성 등)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중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확대하라'를 통해 우리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93,251명, 시인구의 26.37%)로 진입했으며 어르신들이 가장 쉽고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4년째 동결(600만원)중인 신축 보조금 예산을 상향 지원(1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민의 피 같은 돈 내 돈 같이 쓰자'를 통해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비 매칭사업이 진행되는 데 거의 유사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민간시설과 중복되어 예산의 낭비, 행정의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공공시설물의 기초환경조사, 운영계획, 향후전망 등 철저한 과학적 분석으로 실적과 공적에 대한 철저한 불이기의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고 공직자는 책임 있는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권선시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2020 일자리창출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재난정보 시각지대 최소화한다

정읍시, 공평동 정일여중 인근 도로에 1억 4천만원 투입 재해문자 전광판 추가 설치

정읍시가 최근 다양해진 재난 유형에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일환으로 시는 약 1억 4천만 원을 들여 공평동 정일여중 인근 도로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정읍 천변 정주교, 2017년 내장산 워터파크 인근에 단면형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해온 바 있다.

이번 전광판 추가 설치로 총 3개의 재해문자 전광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번 재해문자 전광판은 양면형 전광판으로 통행 시인의 눈에 잘 띄게 설치됐다. 특히, 정일여중 인근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 유형별 시민행동요령 등을 문자와 동영상으로 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 시에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각 마을회관에 시 안전총괄과와 연결된 애플을 설치해 각종 재난 상황 시 마을 애플을 통해 재난정보와 기상특보를 방송하는 등 재난정보 시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역 농업인을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교육비 40만원 중 50%를 지원해 면허취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쟁력 있는 농업, 편하고 안전한 농사 실현

고창군, 소형 특수농기계 조종 면허 교육 단원 '최고'

최근 농사현장에서 굴삭기, 지게차 등의 활용이 늘어난 가운데 고창군이 소형특수농기계 교육이 화제다. 특히 고창군이 지역 농업인을 위해 교육비 40만원 중 50%를 지원해 면허취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7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3톤 미만 소형 농기계(농용굴삭기, 로더, 지게차) 조

종 면허 취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50여명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절반이었던 300명 이상의 인원이 신청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해 217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후반기에도 100여명이 신청해 소형 농기계 교육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반기 교육은 신청자 88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6일까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및 중앙비전문기술학원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 6시간과 실제 장비조작, 정비기술 등 실습교육 6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으로 올해는 총 305명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사용 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와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모양성제 '애향의 밤' 성황리 마쳐

전국각지에서 고창을 빛내주고 있는 재외군민과 기관단체장,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고창군 애향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6일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린 '고창 애향의 밤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군의장과 고창군의회 의원, 유성업 국회의원, 성경찬·김만기 도의원, 유재영 모양성 보존회 대표이사, 재외군민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창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김광중 재경군민회장은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리운 고향은 방문할 때마다 즐겁고 편하다"며 "고창 농산물을 팔아주기 운동 전개, 고창의 역사문화관광 홍보 등 지역발전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츄츄한 복지환경 구축 '총력'

정읍시, 생활 보장 심의회 개최

정읍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생활 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유진섭(정읍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회에서는 정읍시 생활 보장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보고 받고 긴급지원 대상자 15세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20년 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정읍시 생활 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획과 조사, 긴급지원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 사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복지 시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소외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복지 시각지대 없는 츄츄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9,149세대 12,308명으로 정읍시 인구의 약 11%에 해당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위도면, 태풍 '미탁' 피해복구 발벗고 나서

부안군 위도면(면장 고선우) 전 직원들이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피해복구에 총력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대비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전 직원이 개천철 휴일날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지난 2일 오후 5시 부안군에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섰으며 위도면 직원들은 태풍주의보 발효 전부터 전 직원이 태풍대비를 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택 및 취약지, 침수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또 위도면 전 직원은 태풍이 지나간 후 지난 3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관내를 순찰하면서 방파

제 및 해안가 주변의 쓰러진 정비를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넘어진 가로수 등을 철거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저지대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복구작업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여객선 운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에 대비해 파장금항 여객선터미널에 밀려온 페스티로폼, 해초류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치우며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고선우 위도면장은 "태풍 피해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한 데 이번 복구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곰소갯길발효숙제 관광객 2만 5천여명 방문 대성황

지난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서면 곰소대동도부지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곰소갯길발효숙제가 3일간의 대행연을 펼치고 5일 폐막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일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갯길만들기 퍼포먼스로 축제의 서막을 울린 곰소갯길발효숙제는 행사장에 1만 8,000여명, 곰소갯길마을 일원에는 약 2만 5천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곰소갯길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갯길의 고장 곰소에서 맛과 정을 느끼다'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갯길 담그기 체험, 미물미물 장어잡기 체험, 외국인 갯길김치 담그기 체험, 곰소천일염 오래들기, 갯길 맛대 맛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졌다. 특히, 곰소

천일염을 이용한 멸치갯길 담그기는 관광객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에 몰려 이 소진되는 진풍경을 낚기도 했다.

올해 축제는 곰소천일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곰소갯길의 '청정'함을 강조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강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곰소갯길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일련된 곰소갯길발효숙제 추진위원회는 "곰소갯길 명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국 각지에서 찾은 관광객들의 관심 덕분에 행사장에 마련한 4톤이 넘는 곰소천일염을 비롯해 맛있는 곰소갯길 모두 소진됐다"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 만찬주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찹맛을 느껴보세요.

오랫동안의 경주농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감겨함을 한평생 술로 빚어왔습니다. 부안의 밤사반도 청정해역이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집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잠룡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